다산포럼

박석무

교육계 부패를 두고만 볼 것인가

요즘은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보거나 듣기가 두렵다.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의 기사를 읽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까지 느껴져 아픈 마음은 달래기가 힘들다. 20대 말에서 40대 중반까지 18년 동안을 교직에 몸담고 새파란 학생들에게 젊음을 바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왜 교육계의 비리는 근절되지 못하느냐의 질문이 자신까지 부끄럽게 만들어준다. 두 차례 해직되어 5년의 공백이 있기에, 교직을 시작하여 그만둘 때까지는 18년, 실제로는 13년의 세월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환경이나 조건이 더 나은 학교로 옮기기 위해서도 뇌물을 바쳐야하고, 교사에서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도, 교감이나 장학사에서 교장이나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도 뇌물을 바쳐야만 한다면, 그런 교육계가 어떻게 참다운 교육으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올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구비하여 뛰어난 지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자들이, 시작부터 뇌물을 통한 전보나 승진이 가능하다면, 일단 그런 교육계를 그대로 두고는 나라는 올바로 굴러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아직도 매관매직의 세상이라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란'(腐爛)이라는 단어가 있다. 썩고 부패한다는 '썩을 부'라는 글자와 '문드러질 란'이라는 두 글자가 합해진 단어이니, 글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지다'라는 뜻의 단어다. '부'는 겉으로 썩은 것이지만, '란'은 속에까지 썩어 들어가 통째로 썩은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실학자 정약용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당시 자기가 살아가던 18~19세기의 그때를 '부란'한 세상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제도 및 온갖 습속을 바꾸고 고치는 개혁을 통해 부란한 세상을 통째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면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수많은 저서를 유배지에서 저술하였다. 그런 저술이 바로 '경세유표'요 '목민심서' 및 '흠흠신서'였다. 그런 저작이 완성된 지 200여 년, 아직도 그런 부란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물욕과 색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인간임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세상인들 부패가 없을 수는 없었다. 세상은 언제나 썩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고 그래도 한 오라기의 희망이 있는 세상이라면, 최소한 교육계와 법조계, 두 영역만은 썩지 않아야만 희망이 있는 나라다. 세상과 나라의 주인공인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계가 부패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런 나라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다.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자녀의 성적을 높이려고 시험답안지를 조작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교육계도 막장에 이르렀구나 여겼는데, 몇십 명의 교육계 지도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되고 전보되었다는 뉴스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 전체의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있는 집안의 자녀와 없는 집안의 자녀들의 성적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 교육자들이라도 제대로 서서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일도 힘든데, 부란한 교육자들이 어떻게 교단에 서서 바르고 정당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의 계절도 다가온다. 모두가 교육계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교육감·교육위원에 출마한다는 보도들이 줄 잇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교육계가 정화될 것인지,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똑바로 눈을 뜨고 제대로 파악하여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것만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는 일도 병행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참으로 답답하다. 모두가 자신이 최고의 적격자이고 가장 훌륭한 교육자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마음에 맞는 후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요즘 서울시교육청의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정말로 나라는 망하고 말리라는 다산의 탄식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주지도 받지도 말고, 참으로 옳고 바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일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교육계를 정화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이 발휘되기만 바라고 빈다.

〈다산연구소 이사장·한국고전번역원 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천영

이 땅에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던 아프리카근로자 코비씨가 지난해 11월 근로자 대기소로 가는 도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고국에서 가족이 오기까지 한 달간 영안실에 보관됐다. 사체보관 비용과 장례비용이 거의 5백만 원에 달했고 날마다 늘어만 가는 비용을 걱정하다가 한 달여 만에 간신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인근교회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은 금액 60여만 원을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그는 태어난 지 5년 된 아들을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였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 아버지를 낯설어 하는 딸을 둔 아버지였다. 그는 불법체류자이기도 했다 뒤늦게 찾아온 그의 아내는 코비씨의 무덤에 엎드려 한없이 흐느꼈다. 왜 이들이 한국에 왔을까? 자신의 고향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었다. 자국의 파탄 난 경제는 그들을 가족과 이별하게 만들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게 만들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고국으로 송금한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어린 자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깨진 꿈일지라도 그들은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

지난주 필자는 까만 피부색의 아프리카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달라는 도움을 요청받았다. 이것저것 할 일을 뒤로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로 임금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의 사장은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했다. 초행길인지라 많은 시간이 걸려 겨우 찾아간 공장은 폐비닐을 재생하는 공장이었다. 어지럽게 바람에 날리는 폐비닐이 쌓인 공장에 인적은 없었고, 숙소에는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만난 사람은 기품 있는 조선족 여성이었다. 사장님을 만나러왔다며 말을 붙이자 본인도 온 지 일주일 됐다며 들어오란다. 음료수를 건네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중국에서 과학원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겪은 서러움에 가슴이 쓰리다고 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회사는 하루 14시간 일하면 상당한 보수를 준다며 밤낮없이 일을 시켰단다. 하지만, 6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던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졌단다. 그 후 노동청에 신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왔다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필자를 바라봤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일 뿐이다. 우리에게 불편하고 작은 존재인 그들도 그들의 가족에게는 작은 영웅이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외국으로 떠났던 과거 영웅처럼 그들도 자존심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함박웃음을 짓고 입국했던 그들이 돌아갈 땐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그들이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국할 때도 함박웃음을 짓고 떠나게 할 수는 없을까.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소장·광주새날학교 교장〉

기고

양회주

증심사지구 생태복원 뿌듯하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이는 무등산 전경이 참 편안하게 다가온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정상부 흰 눈이 보이더니 아직은 산의 모습은 동색이지만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러한 매력에 새롭게 태어난 증심사 지구 복원지를 통해 산행을 하면서 청·장년 시절을 거치면서 보아온 무등산이 참 많이도 제모습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등산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그러나 과거 무등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정상부에는 군부대와 방송시설이, 원효사 지구와 증심사 지구 초입에는 허름한 상가시설이, 무당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등 우리 무등산을 신음토록 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다행히 1972년에 무등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생채기와 같은 훼손을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 또한 많은 난관과 역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첫 정비 사업이었던 1977년 무당골 무허가 집을 철거하는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이 살해된 일명 '무등산 타잔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이는 무등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산속 훼손지 정비를 주춤거리게 한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무등산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군부대, KT중계소, 원효사 지구 원주민 촌을 대상으로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복원하였다.

무등산은 연간 탐방객 700만 명 중 약 70%가 증심사 지구를 이용하는 데, 증심 계곡을 따라 허름하고 무질서한 상가와 비좁은 주차시설 등은 무등산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왔고, 심지어 외지관광객들에게서는 "산은 좋은데 이런 시설들이 있느냐"며 핀잔을 받기도 한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 모두를 고민하게 하였고 정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게 하였지만 원주민촌 및 상가 등 91세대에 대한 이주에 따른 민원과 막대한 사업비(747억원) 마련 등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민단체·지역주민·광주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2년부터 숙원사업을 시작하였지만 37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상가 주민의 반발은 생존권과 토지 보상 문제와 결부되어 너무 컸었다.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건물주나 영업주를 직접 만나 설득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어느 단체장 때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이주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연상태 복원을 완료한 상태이다.

되돌아 보면 무등산을 복원하기 위한 어느 한 사업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부대 이전의 경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원주민과 상가 이전은 생존권을 이유로 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시민 모두의 염원과 열정이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식생과 어울려져 자연스러운 생태 복원지로 탈바꿈되어 문화수도 1등 광주에 걸 맞는 무등산의 위용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룩한 무등산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타지역의 벤치마킹 장소가 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큰 자산이 되리라 확신한다. 증심사지구 복원을 위해 상당기간 등산로를 통제하는 등 불편을 끼쳤는데 이를 감내하신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봄철 산불 조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스마트폰 주식거래 급증… 보안 대책 시급

요즘 스마트폰 주식거래 이용자가 급증하고 거래 대금도 1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주식거래 시스템의 보안 기준은 너무나 취약하다.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아이디나 계좌번호같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무선 인터넷을 통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에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악용할 수도 있다.

일전에 외신 뉴스를 보니 해외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겨냥한 해킹 프로그램이 유통되어 발칵 뒤집힌 사건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서둘러서 스마트폰의 보안기준을 높이는 규정을 만들고 해킹이나 분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민주, '줄 세우기' 舊態 못 벗으면 희망 없다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텃밭인 호남지역 광역 단체장 경선 방식을 놓고 갈 지(之)자 행보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번에는 지방(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정 방법으로 소규모 당원 경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당원 경선은 지역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입김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는 당원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단은 지역위원회 당원 3% 이상, 당비 우대 당원 50% 이하, 후보자 추천당원 20%, 일반 당원 30%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우대 당원이 200명 안팎으로 지방의원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규모는 400~600여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역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줄 세우기'는 지난 20년 동안 되풀이 된 폐단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지역 여론이나 주민은 안중에 없고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18일 광주시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밀어붙인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다. 지방선거를 돈 선거로 타락시키고, 지방정치를 오염시킨 주요인도 지방의원의 '줄 세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원의 '줄 세우기' 악습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은 요원하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새롭게 도약하려면 '줄 세우기'라는 구태부터 과감히 깨부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 과감히 퇴출해야

지난해 전남에서 열렸던 19개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순위가 매겨졌다. 함평 나비축제가 1위 축제로 선정된 반면 구례 산수유꽃축제와 화순풍류문화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도가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시민단체 등에 종합평가를 의뢰한 결과다.

지역 축제는 고유문화를 전승하고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본래의 역할은 물론 외지인을 불러 들이는 관광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축제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지역축제가 개최되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특산물이나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가 하면 축제의 구성과 내용 역시 기획사에 맡기다 보니 비슷비슷해지기 십상이다. 겉만 화려하게 꾸미기 일쑤이고, 홍보용 행사 일색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번 평가 결과 일부 축제의 경우 행사요원조차 행사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숙박·관광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모든 행사를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외면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역축제에 주민 참여는 필수다. 주민들이 흥겨워하지 않는 축제를 외지 관광객들이 즐길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축제의 수를 줄여야 한다. 전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올해 지역 대표축제만 34개에 달한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만이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는 통·폐합하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대표 축제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無等鼓

여성 상위시대?

우리나라에서 '여성파워'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2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제41기 연수생 986명 중 여성은 354명으로 35.9%에 이르렀다. 40기 379명(39.1%)보다는 비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39기(348명, 34.7%)보다는 높다. 여성들이 영예의 사관학교 수석졸업자 명단에 오르는 일도 심심치 않다.

가정에서는 단연 '여성 상위시대'로 일컬을 만하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주부가 돈 씀씀이를 주도한다. 주부(아내)가 경제적 능력까지 갖췄다면 가정의 대소사와 관련한 발언권과 함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커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남녀 평등국가일까?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큰 사회문제다. 지난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올 1월까지 차별행위 전체 진정사건 중 성희롱은 676건으로 9.4%를 차지했다.

말로는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여성을 희롱대상으로 여기는 잠재의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도 남성 편향적인 한국인의 의식을 보여준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은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지 말고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적 보장, 사회적 진출, 가정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 등 겉모습으로 한국은 분명 남녀평등 국가를 넘어 여성상위시대에 진입한 것처럼 비친다. 그러나 국민 의식 측면에서 양성평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치경 사회1부장 uni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